금주의 법구-〈불유교경〉
참회하는 마음은 쇠갈고리 같아서
인간의 잘못된 마음을 억제한다.
참회하는 마음을 잊어선 안된다.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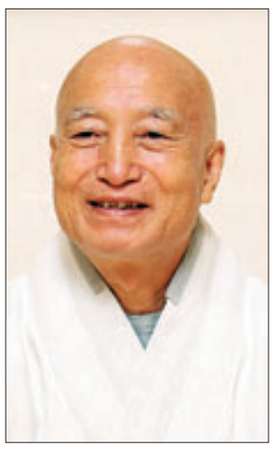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8월 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66호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 설정 · 수불 · 혜총 · 원학 스님 4자 구도

### 9월 20일 후보등록 마감
### 26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기호1번 **설정 스님**
· 現덕숭총림 방장
· 現원로의원
· 前중앙종회의장



기호2번 **수불 스님**
· 現안국선원장
· 現부산불교방송사장
· 現불교미래포럼 통섭



기호3번 **혜총 스님**
· 現대각회 이사장
· 前포교원장
· 前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기호4번 **원학 스님**
· 現군위 인각사 주지
· 前중앙종회의원(4선)
· 前불교중앙박물관장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20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설정 · 수불 · 혜총 · 원학 스님(이상 기호 순) 총 4인이 출마했다.

후보등록 사무가 시작되기 전인 18일 오전 접수를 대기한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과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측 대리인들은 선거법에 따라 추첨을 통해 기호를 정했다. 추첨에서 설정 스님이 기호 1번을, 수불 스님이 기호 2번을 배정받았다. 같은 날 오전 11시경 후보등록 한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과 마감일인 20일 오전 접수한 군위 인각사 주지 원학 스님은 각각 기호 3번과 4번이 배정됐다.

기호 1번 설정 스님은 총림 방장이자 원로의원으로서 총림 대중을 아우르고 수많은 납자들을 제접했다는 점에서 수행자의 면모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수덕사 주지를 비롯해 중앙종회의장을 역임하며 행정능력도 두루 갖췄다. 다만 최근 불거진 서울대 학력 논란으로 인해 형성된 일부 부정적 여론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설정 스님은 서울대 부설 방송통신대 졸업임을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정면 돌파했지만 논란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그럼에도 현재로써 가장 당선에 가까운 유력후보로 손꼽힌다.

기호 2번 수불 스님은 오래 전부터 부산과 서울 등에 안국선원을 세우고 도심포교와 간화선 전파에 힘을 쏟은 인물이다. 7박8일 간화선 집중수행을 통해 수만 명의 출 · 재가자들이 간화선을 체험하도록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교신문사장, 범어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불교방송사장,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불교미래포럼 통섭 등을 맡고 있다. 일부 중앙종회의원과 영향력 있는 스님들이 지지하고 있어 설정 스님 대항마로 떠올랐다. 하지만 안거 대중공양비 전달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정견발표 등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과 후보자격 논란에 휩싸인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관련 기사 2면〉

기호 3번 혜총 스님은 前포교원장 출신으로서 종단 포교종책 개발 등에 헌신했다. 특히 인덕(人德)을 바탕으로 한 대중과의 소통능력이 장점이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 등을 역임하며 대사회적인 활동도 펼쳤다. 다만 타후보에 비해 뒤늦게 출마입장을 밝혀 탄탄한 선거운동조직을 갖추지 못한 것이 당선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기호 4번 원학 스님은 중앙종회 사무처장, 총무원 문화부장 및 총무부장, 제10 · 11 · 12 · 15대 중앙종회의원 · 불교중앙박물관장 등 종단 각종 주요소임을 역임해 뛰어난 행정능력에는 이견이 없다. 2009년 총무부장 재직 당시 스스로 '삼이(三耳)'라는 호를 지었다. 원학 스님에 따르면 '총무원 소임은 봉사하는 자리, 즉 머슴살이와 같은데 귀 밝은 머슴이 되기 위해서는 귀가 3개쯤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몇 년간 총무원 외부 소임을 주로 맡은 데다 넓지 않은 지지기반이 단점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5일 각 후보에 대한 자격심사를 마친 뒤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이어 26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며 후보들은 이날 종책발표 기자회견 등을 예고했다. 교구선거인단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각 교구 종회서 선출된다. 〈차주상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 本紙 노덕현 차장 제25회 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

### 'Z세대 포교' 기획보도로 "신세대 포교 방안 제시"



本紙 노덕현 취재부 차장〈사진〉이 제25회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제25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작 선정 결과를 9월 21일 발표했다. 대상에는 KBS의 '3천배, 나를 찾는 수행'이 이름을 올렸으며, 本紙는 노덕현 차장의 '이제는 Z세대 포교다(이하 Z세대 포교)' 기획보도가 신문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本紙 보도 'Z세대 포교'는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Z세대에 대한 성향 분석 및 유튜브 내 불교, 기독교 콘텐츠 비교를 진행했으며, 유튜브 콘텐츠 확보를 위한 방안을 법륜 스님, 정토TV 팀장 등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제시했다.

本紙 보도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최근 Z세대라 불리는 신세대들은 기존의 세대들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갖는다"면서 "그들이 가진 특징과 성향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포교방안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불교언론인상에는 이태행 前 BTN방송본부장이 선정됐다. 방송 부문 최우수상에는 전주MBC의 '마음챙김', 우수상에는 KBS의 '돌부처의 숲, 경주 남산'과 BBS FM특집 다큐멘터리 '소리의 힘' 2부작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신문 부문 우수상엔 법보신문이 연속 보도한 '여성질환 사각지대 비구니 스님'이 선정됐다.

BBS 통합 어플리케이션이 뉴미디어 부문 최우수상에 이름을 올렸으며, 특별상에는 영화 '무문관'의 윤용진 감독과 인터넷 1인미디어 'I GO 절 RUN'이 선정됐다. 신성민 기자



## '국수' 한 사발 '자비' 한 그릇

서울 영등포역 6번출구 뒷골목 쪽방촌에는 1평도 채 되지 않는 방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번화가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 골목에서 추석을 앞두고 훈훈한 온정이 피어났다. 18년째 매주 목요일 마다 쪽방촌에서 무료급식을 펼쳐오고 있는 쪽방촌도우미봉사회가 9월 21일 낮 12시에도 어김없이 국수공양을 진행한 것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전해주는 봉사회 김윤석 경위〈사진 왼쪽〉나 국수를 받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표정에서 미소가 슬며시 번진다. 한 그릇으로 모자라 2인분씩 국수로 허기진 배를 채운 이들은 불자들로 구성된 봉사회 회원들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 령**

명)편집국 취재부 기자 **박 진 형**
2017년 9월 25일 부
이상 1명

**1167호는 추석 연휴 관계로 발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97권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18권 출간

출간 불사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방거사 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가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바로보인 유마경



禪의 일상, 禪의 누림!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라 할 것이니, 불보살님이 교화하는 경지에서의 깨달음의 실경과 신통자재한 방편행을 보여주는 최상승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가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구, 바로보인)